

勞 動 經 濟 論 集  
 第26卷(2), 2003. 6, pp. 1~30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안주엽\*\* · 성지미\*\*\*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경과기간 모형을 「한국노동패널」 1차(1998)~4차(2001) 자료에 적용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지속기간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서 길게 나타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주제어 : 자영업, 직업훈련, 경과기간 모형

투고일: 2003년 4월 14일, 심사일: 4월 15일, 심사완료일: 5월 12일.

\*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여전히 남은 오류는 필자들의 책임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yahn@kli.re.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jsung13@chollian.net).

##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취업자 21,362천 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8,023천 명)에 이르고 있다.<sup>1)</sup> 이 중 고용주가 19.6%, 자영자가 57.3%, 가족종사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낮은 미국의 8.1%에 비해 3.5배나 높은 비율이다 (한국노동연구원,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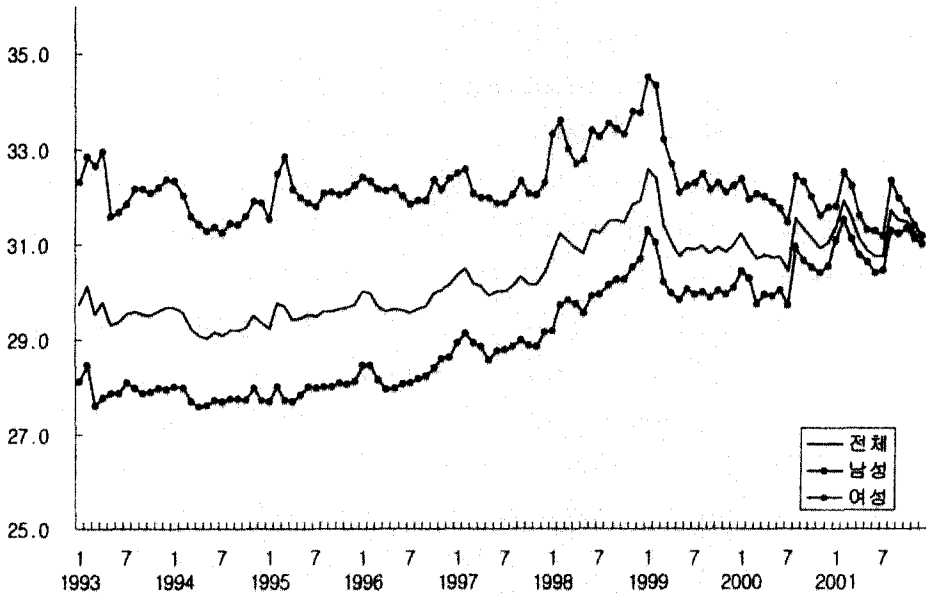
자영업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비농 전산업)의 장기추세를 성별로 보면, [그림 1]에서 보듯,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는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에 자영업의 비중이 남녀 공히 일시적으로 급상하였다는 점, 셋째는 여성의 경우 장기추세에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급상승하여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자영업이 노동공급에서 중요한 대안의 하나이며, 특히 경제위기와 같이 고용이 급속히 하락하여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떨어질 때 더욱 그러하며, 과거 상대적으로 여성에 국한된 자영업이 남성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주의 높은 비율은 영세한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1999년 종업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67.4%로 파악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자영업 특히 소규모 자영업의 성장은 개별업체의 측면에서 업체의 성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 증가와 연결되며 국가 차원의 생산성향상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선택은 시장 자체의 노동수급 여건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호 및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체 노동공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 류재우·최호영(1999)은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 (비농 전산업)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자영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자영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비롯한 자영업에서의 성공 및 성장이나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계치를 제시하는 데 그쳤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김우영(2000)은 근로자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두 대안의 선택요인을 분석하고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종사상지위를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금재호·조준모(2000)는 최초 취업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로 표본을 구분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비교하였다. 안주엽(2000)은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을 성별로 분리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은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연구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자영업의 생성(창업), 성장(경제적 성과와 지속), 소멸의 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영업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자영업주가 가지는 특성을 자영업을 선택한 동기, 자영업에 대한 태도, 자영업 경영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Delage, 2002). 자영업의 창업 동기, 창업 당시의 훈련이수 여부, 이전 직장의 경험, 자영업에 대한 태도 등은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자영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성지미·안주엽(2002)은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자료에 나타난 1,258개 자영업 표본을 이용하여, 월평균(또는 시간당) 자영업소득, 연간(또는 1인당) 매출액,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의 지표로 정의한 후, 자영업주 개인과 자영업 사업체의 특성에 더하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요인들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주의 이전 직장 경험, 자영업의 창업 동기, 자영업의 증장기 목표, 자영업 창업 당시 훈련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이 추가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가설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로는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를 이용한 분석은 자영업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이 평균 17개월이며, 자영업 지속기간의 완료형태별로 구분하면, 자영업이 완료된 경우의 지속기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나는 반면 양측절단된 표본의 경우 26개월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109개월이나 되며, 비례위험모형의 추정에 따르면,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40대와 50대가 30대에 비해 자영업을 중단할 위험률이 낮고 여성의 출산이 1년 이내 여성의 자영업 중단 위험률을 7배나 높이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특성에서 광업·제조업에 비해 농림어업, 도소매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자영업을 중단할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Zimbabwe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위험률을 분석한 Nziramasanga and Lee(2001)의 연구는 재정관련 특성, 지역 및 업종이 중요한 영향변수라고 보고하였고,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이용한 Taylor(1999)의 연구는 일자리 관련

경험과 초기 자본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제1~4차년도 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을 경험한 표본을 대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매순간 자영업자가 자영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영업 퇴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자영업 지속기간의 연구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였을 때 일정 시점에 자영업의 지속 여부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자영업과 관련되어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고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5,367개 자영업 표본을 대상으로 지속기간의 분포와 평균 지속기간을 성·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자영업 지속기간을 분석하기 위한 비례위험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고 비농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추정 결과와 혼련이 지속기간에 미치는 추가 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 및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 Ⅱ. 자료 및 표본과 자영업 지속기간

###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1998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노동패널은 제2차 조사(1999년)부터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유형 1~8까지)하고 각 조사시점 사이에 발생하거나 소멸한 일자리를 추적하고 있다. 제3차까지(2000년)의 자료를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데 비하여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제4차 조사(2001년)에서는 비록 부가조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도 상당히 보강되었다. 이는 향후 비임금근로(이하에서는 자영업이라 함)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껍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sup>2)</sup>

한국노동패널 제4차 조사에 포함된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업종, 사업체 명, 사업체 소재지, 무급가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 규모 등 현 사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② 사업체 시작 시점, 창업 동기, 유산상속 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 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 당시의 상황, ③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다양한 창업훈련(7종) 이수 여부, ④ 자금, 기술 확보 등 6가지 측면에서의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8가지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Likert scale), ⑤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⑥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 소득 및 연간 매출액, ⑦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⑧ 7가지 중 주가 되는 사업체의 증장기 목표를 묻고, ⑨ 자영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또한 조사된 자영업이 조사 시점 당시에 주된 일자리로 응답된 경우, 유형별 자료에서 얻어진 자영업에 관한 정보와 취업자 개인공통에 나타나는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취업자 개인공통에서 취득 가능한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로는 조사 시점 직전 한 주의 요일별 실제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장단 및 근로시간 감축 또는 연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득, 안정성 등 7가지 측면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과 일자리의 불일치 여부, 그리고 취업 중 구직(on-the-job search)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및 가구에 관한 사회·경제학 정보 및 제4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된 은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역시 자영업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 자영업 지속기간 - 기초분석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조사까지 나타나는 자영업 표본은 5,357개로

- 
- 2) 비임금근로는 고용주,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세 유형의 자영업을 포함한다. 부부가 함께 영위하는 자영업의 경우 일방(주로 남성 배우자)은 자영업자로, 타방(주로 여성 배우자)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나 실제 누가 주역을 하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사이에 행태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현실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보다는 오히려 분석상 오류를 범할(noise) 확률이 높다. 피용자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영업의 규모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본고에서는 경제적 성과인 연간 매출액을 자영업 규모의 대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성지미·안주엽(2002)은 자영업의 규모가 연간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영업의 유형별로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의 연구로 미룬다.

파악되고 있다.<sup>3)</sup> 전체 자영업 표본은 제1차년도 조사에 이전 직장으로 포함되며 지속기간이 완료된 1,850개 자영업 표본, 제1차년도 조사 시점 이전에 시작되어 제1차년도 조사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2,415개 자영업 표본,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으로 파악된 539개 자영업 표본, 제2차년도와 제3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으로 파악된 267개 자영업 표본, 제3차년도와 제4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으로 파악된 286개 자영업 표본으로 구성된다.

<표 1>은 자영업의 진입 시점(또는 자영업 발견 시점)으로 집단화한 자영업 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와 평균 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의 경우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30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기간이 12년 이상인 표본의 비중이 29%를 상회하고 있으며 2년 미만인 경우도 24%에 이르고 있다. 물론 최근에 시작되어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짧게 나타날 것이므로 평균 지속기간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제1차년도 조사 시점 이후에 진입한 자영업 표본의 지속기간은 대부분 미완료(censored)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지속기간은 상당히 짧게 나타나게 된다.).

<표 1> 진입 시점에 따른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단위 :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5,357	115( 2.1)	1,284(24.0)	891(16.6)	560(10.5)	373( 7.0)	287( 5.4)	287( 5.4)	1,560(29.1)	5,242	130
자영업 진입 시점											
1차이전	1,850	51( 2.8)	305(16.5)	305(16.5)	226(12.2)	146( 8.0)	110( 5.9)	113( 6.1)	594(32.1)	1,799	149
1차조사	2,415	30( 1.2)	227( 9.4)	360(14.9)	320(13.3)	224( 9.3)	172( 7.1)	160( 6.6)	922(38.2)	2,385	160
2차조사	539	12( 2.2)	264(49.0)	206(38.2)	10( 1.9)	1( 0.2)	3( 0.6)	12( 2.2)	31( 5.8)	527	43
3차조사	267	15( 5.6)	230(86.1)	9( 3.4)	3( 1.1)	2( 0.8)	1( 0.4)	..	7( 2.6)	252	28
4차조사	286	7( 2.4)	258(90.2)	11( 3.8)	1( 0.3)	..	1( 0.3)	2( 0.7)	6( 2.1)	279	16

주: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은 경우(115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3) 직업력의 비임금근로 일자리 중 제1차년도 조사에서 '15세 이후의 일자리'로 표현되는 회고적 일자리는 제외하고 '이전 직장'과 '현재의 일자리' 및 제1차년도 조사 이후 제4차년도 조사까지 발견된 일자리를 포함. 직업력으로 추적하여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제1차년도 조사에서 '이전 직장'에 관한 정보로부터 나타난 지속기간이 완료된 자영업 표본('1차 이전')의 지속기간은 평균 149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차년도 조사 이전에 시작되어 제1차년도 조사 당시에 지속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자영업 표본('1차 조사')의 지속기간은 평균 160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영업 표본의 경우 지속기간이 12년 이상인 표본의 비중이 32~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2년 미만 단기간의 지속기간을 갖는 표본의 비중은 각각 17%와 9%의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자영업 지속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자영업 표본의 성별 또는 업종별로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및 평균 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른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평균 138개월)이 남성 자영업의 경우(평균 124개월)보다 평균적으로 14개월 정도 긴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년도 조사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표본으로 2년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23~25%로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8~10년 미만까지 감소하여 5.6%까지 떨어지지만 12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은 28.3%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비율은 10~12년 미만까지 계속 감소하여 4.6%로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12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하고

<표 2>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업종별)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체	5,357	115( 2.1)	1,284(24.0)	891(16.6)	560(10.5)	373( 7.0)	287( 5.4)	287( 5.4)	1,560(29.1)	5,242	130
성별											
남성	3,045	67( 2.2)	712(23.4)	489(16.1)	333(10.9)	230( 7.6)	172( 5.6)	180( 5.9)	862(28.3)	2,978	124
여성	2,312	48( 2.1)	572(24.7)	402(17.4)	227( 9.8)	143( 6.2)	115( 5.0)	107( 4.6)	698(30.2)	2,264	138
업종별											
농림어업	618	14( 2.3)	57( 9.2)	58( 9.4)	28( 4.5)	15( 2.4)	21( 3.4)	23( 3.7)	402(65.0)	604	296
제조업	1,156	32( 2.8)	147(12.7)	126(10.9)	120(10.4)	84( 7.3)	73( 6.3)	77( 6.7)	497(43.0)	1,124	193
건설업	236	1( 0.4)	61(25.8)	37(15.7)	28(11.9)	29(12.3)	13( 5.5)	15( 6.4)	52(22.0)	235	94
도소매업	1,643	29( 1.8)	420(25.6)	299(18.2)	182(11.1)	128( 7.8)	92( 5.6)	104( 6.3)	389(23.7)	1,614	97
음식숙박	732	11( 1.5)	295(40.3)	173(23.6)	90(12.3)	48( 6.6)	38( 5.2)	18( 2.5)	59( 8.1)	721	50
운수통신	188	4( 2.1)	45(23.9)	29(15.4)	22(11.7)	17( 9.0)	16( 8.5)	15( 8.0)	40(21.3)	184	96
부동산	240	6( 2.5)	77(32.1)	51(21.3)	29(12.1)	18( 7.5)	12( 5.0)	13( 5.4)	34(14.2)	234	74
기타서비스	535	11( 2.1)	180(33.6)	118(22.1)	61(11.4)	34( 6.4)	22( 4.1)	22( 4.1)	87(16.3)	524	72

주: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은 경우(115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있는 비율은 30.2%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10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한 경우에는 자영업 지속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자영업 지속기간의 평균을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296개월, 24.6년)과 제조업(193개월, 16.1년)이 지속기간이 가장 긴 업종에 해당하며, 지속기간이 짧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제조업의 약 1/4 정도인 50개월에 불과하다.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운수 및 통신업에서 지속기간은 90개월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부동산 및 임대업과 기타 서비스업에서의 지속기간은 6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농업의 경우 지속기간이 12년 이상인 비중이 2/3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경우 업종전환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조업 자영업이 1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비중은 약 43%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제조업이 많은 편이다. 이들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2년 미만의 짧은 지속기간을 갖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40%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3>~<표 6>는 제1차년도 조사 이후에 자영업에 진입하여 지속기간의 과소 추정을 유발하는 짧은 지속기간을 갖는 자영업 표본을 제외한 4,265개 자영업 표본을 대상으로 전체 표본, 제1차년도 조사 이전에 지속기간이 완료된 표본, 제1차년도 조사 이후에 지속기간이 완료된 표본과 미완료된 표본으로 나누어 성별·업종별 지속기간의 분포와 평균 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제1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자영업 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며, 여성이 164개월로 남성의 148개월보다 16개월 긴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농림어업의 지속기간이 평균 348개월이나 되어 거의 30년에 가깝게 나타나며 제조업의 지속기간은 평균 210개월에 이르고 있다. 음식숙박업(61개월), 부동산 및 임대업(93개월), 그리고 기타서비스업(92개월)을 제외하고는 120개월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1차년도 조사에서 '이전 직장'인 자영업 표본의 평균 지속기간은, <표 4>에서 보듯이 149개월이며, 성별 차이는 다른 표본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훨씬 큰 31개월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에 시작되고 완료된 자영업 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의 평균을 업종별로 보면 다른 표본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도매 및 소매업의 지속기간이 52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난 반면 음식숙박업은 119개월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업종에 속한다. 제조업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평균 지속기간이 107개월로 건설업(108개월)이나 운수 및 통신업(105개월)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제1차 조사에 관찰된 표본)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4,265	81( 1.9)	532(12.5)	665(15.6)	546(12.8)	370( 8.7)	282( 6.6)	273( 6.4)	1,516(35.5)	4,184	155
성 별											
남 성	2,440	51( 2.1)	284(11.6)	362(14.8)	326(13.4)	229( 9.4)	170( 7.0)	173( 7.1)	845(34.6)	2,389	148
여 성	1,825	30( 1.6)	248(13.6)	303(16.6)	220(12.1)	141( 7.7)	112( 6.1)	100( 5.5)	671(36.8)	1,795	164
업종별											
농림어업	481	11( 2.3)	4( 0.8)	19( 4.0)	25( 5.2)	14( 2.9)	19( 4.0)	16( 3.3)	373(77.5)	470	348
제조업	1,049	30( 2.9)	75( 7.1)	102( 9.7)	118(11.2)	84( 8.0)	73( 7.0)	75( 7.1)	492(46.9)	1,019	210
건설업	178	1( 0.6)	17( 9.6)	25(14.0)	28(15.7)	29(16.3)	13( 7.3)	14( 7.9)	51(28.7)	177	118
도소매업	1,310	19( 1.5)	170(13.0)	240(18.3)	179(13.7)	126( 9.6)	91( 6.9)	102( 7.8)	383(29.2)	1,291	116
음식숙박	545	4( 0.7)	152(27.9)	140(25.7)	87(16.0)	48( 8.8)	37( 6.8)	18( 3.3)	59(10.8)	541	61
운수통신	139	4( 2.9)	12( 8.6)	14(10.1)	22(15.8)	17(12.2)	15(10.8)	15(10.8)	40(28.8)	135	122
부동산	176	4( 2.3)	37(21.0)	31(17.6)	28(15.9)	18(10.2)	12( 6.8)	12( 6.8)	34(19.3)	172	93
기타서비스	387	8( 2.1)	65(16.8)	94(24.3)	59(15.2)	34( 8.8)	22( 5.7)	21( 5.4)	84(21.7)	379	92

주: 제1차 조사에서 관찰된 표본이라 함은 당시 종사하고 있던 자영업 표본(2,415개)과 '이전 직장'에 관한 회고적 정보에서 나타난 자영업 표본(1,850개)을 말함.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은 경우(81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4〉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제1차 조사에서 회고적 정보로 관찰된 1,850개 표본)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1,850	51( 2.8)	305(16.5)	305(16.5)	226(12.2)	146( 7.9)	110( 5.9)	113( 6.1)	594(32.1)	1,799	149
성 별											
남 성	1,029	33( 3.2)	162(15.7)	161(15.6)	143(13.9)	96( 9.3)	66( 6.4)	70( 6.8)	298(29.0)	996	135
여 성	821	18( 2.2)	143(17.4)	144(17.5)	83(10.1)	50( 6.1)	44( 5.4)	43( 5.2)	296(36.1)	803	166
업종별											
농림어업	739	26( 3.5)	57( 7.7)	81(11.0)	71( 9.6)	47( 6.4)	52( 7.0)	39( 5.3)	366(49.5)	713	235
제조업	60	-	8(13.3)	11(18.3)	9(15.0)	9(15.0)	4( 6.7)	4( 6.7)	15(25.0)	60	107
건설업	584	13( 2.2)	104(17.8)	112(19.2)	72(12.3)	43( 7.4)	36( 6.2)	48( 8.2)	156(26.7)	571	108
도소매업	215	2( 0.9)	78(36.3)	51(23.7)	32(14.9)	21( 9.8)	6( 2.8)	9( 4.2)	16( 7.4)	213	52
음식숙박	44	1( 2.3)	7(15.9)	4( 9.1)	9(20.5)	4( 9.1)	2( 4.5)	3( 6.8)	14(31.8)	43	119
운수통신	64	1( 1.6)	17(26.6)	6( 9.4)	12(18.8)	10(15.6)	4( 6.3)	-	14(21.9)	63	105
부동산	144	8( 5.6)	34(23.6)	40(27.8)	21(14.6)	12( 8.3)	6( 4.2)	10( 6.9)	13( 9.0)	136	64
기타서비스	387	8( 2.1)	65(16.8)	94(24.3)	59(15.2)	34( 8.8)	22( 5.7)	21( 5.4)	84(21.7)	379	92

주: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은 경우(81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5> 완료된 자영업의 지속기간 분포(제1차 조사 표본)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681	9(1.3)	141(20.7)	139(20.4)	102(15.0)	50(7.3)	32(4.7)	37(5.4)	171(25.1)	672	121
성 별											
남 성	363	4(1.1)	72(19.8)	71(19.6)	54(14.9)	33(9.1)	14(3.9)	21(5.8)	94(25.9)	359	118
여 성	318	5(1.6)	69(21.7)	68(21.4)	48(15.1)	17(5.3)	18(5.7)	16(5.0)	77(24.2)	313	124
업종별											
농림어업	98	4(4.1)	3(3.1)	5(5.1)	8(8.2)	4(4.1)	1(1.0)	5(5.1)	68(69.4)	94	352
제조업	58	-	8(13.8)	5(8.6)	11(19.0)	4(6.9)	3(5.2)	5(8.6)	22(37.9)	58	124
건설업	32	1(3.1)	4(12.5)	5(15.6)	6(18.8)	5(15.6)	-	3(9.4)	8(25.0)	31	106
도소매업	213	3(1.4)	38(17.8)	47(22.1)	33(15.5)	26(12.2)	12(5.6)	13(6.1)	41(19.2)	210	96
음식숙박	143	-	55(38.5)	37(25.9)	21(14.7)	5(3.5)	7(4.9)	5(3.5)	13(9.1)	143	52
운수통신	16	1(6.3)	3(18.8)	1(6.3)	1(6.3)	2(12.5)	1(6.3)	2(12.5)	5(31.3)	15	121
부동산	34	-	12(35.3)	9(26.5)	2(5.9)	2(5.9)	3(8.8)	2(5.9)	4(11.8)	34	61
기타서비스	87	-	18(20.7)	30(34.5)	20(23.0)	2(2.3)	5(5.7)	2(2.3)	10(11.5)	87	70

주: 제1차 조사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표본 2,415개 중 제4차 조사까지 기간 중에 자영업을 그만둔(지속기간이 완료된) 표본 681개.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은 경우(9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표 6> 미완료된 자영업의 지속기간 분포(제1차 조사 표본)

(단위: 명, %, 월)

	표본	기간 모름	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년 이상	평균 지속기간	
										표본	평균
전 체	1,734	21(1.2)	86(5.0)	221(12.7)	218(12.6)	174(10.0)	140(8.1)	123(7.1)	751(43.3)	1,713	175
성 별											
남 성	1,048	14(1.3)	50(4.8)	130(12.4)	129(12.3)	100(9.5)	90(8.6)	82(7.8)	453(43.2)	1,034	171
여 성	686	7(1.0)	36(5.2)	91(13.3)	89(13.0)	74(10.8)	50(7.3)	41(6.0)	298(43.4)	679	181
업종별											
농림어업	383	7(1.8)	1(0.3)	14(3.7)	17(4.4)	10(2.6)	18(4.7)	11(2.9)	305(79.6)	376	347
제조업	252	4(1.6)	10(4.0)	16(6.3)	36(14.3)	33(13.1)	18(7.1)	31(12.3)	104(41.3)	248	156
건설업	86	-	5(5.8)	9(10.5)	13(15.1)	15(17.4)	9(10.5)	7(8.1)	28(32.6)	86	131
도소매업	513	3(0.6)	28(5.5)	81(15.8)	74(14.4)	57(11.1)	43(8.4)	41(8.0)	186(36.3)	510	134
음식숙박	187	2(1.1)	19(10.2)	52(27.8)	34(18.2)	22(11.8)	24(12.8)	4(2.1)	30(16.0)	185	79
운수통신	79	2(2.5)	2(2.5)	9(11.4)	12(15.2)	11(13.9)	12(15.2)	10(12.7)	21(26.6)	77	125
부동산	78	3(3.8)	8(10.3)	16(20.5)	14(17.9)	6(7.7)	5(6.4)	10(12.8)	16(20.5)	75	98
기타서비스	156	-	13(8.3)	24(15.4)	18(11.5)	20(12.8)	11(7.1)	9(5.8)	61(39.1)	156	129

주: 제1차 조사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표본 2,415개 중 제4차 조사까지 자영업을 지속한(지속기간이 미완료된) 표본 1,734개. 평균의 계산에서 지속기간이 변별되지 않은 경우(21명)는 제외.

( )안은 해당 자영업 표본 중 해당 지속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제1차년도 조사 시점에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후에 완료된 자영업 표본의 평균 지속기간은 <표 5>에서 보듯이 121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 자영업의 평균 지속기간은 124개월이며 남성의 경우 118개월로 성별 차이는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52개월)과 부동산 및 임대업(61개월) 및 기타서비스업(70개월)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낮은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표 6>은 제1차년도 조사 시점에 지속되고 있었고 제4차년도 조사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표본의 평균 지속기간은 175개월로 완료된 표본의 경우보다 54개월이나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 오래 지속된 자영업이 경제위기 중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일단 살아남은 자영업의 경우에 자영업을 그만둘 유인이 작아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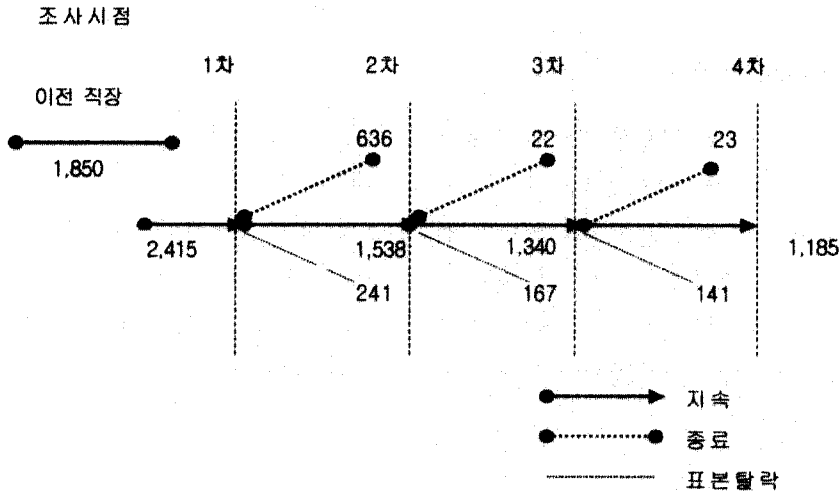
<표 7>은 자영업 집단 중 제1차 조사 이전에 시작되었고 제1차 조사 시점에 지속되고 있었던 2,415개 자영업 표본에 대하여 제4차 조사까지의 조사 시점별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그림 2]로서 한 조사 시점에 존재하던 자영업은 다음 조사 시점에서 ① 그대로 유지 ② 자영업을 그만둠 ③ 표본에서 탈락과 같은 세 경우의 대안을 갖는다. 그림에 따르면 제1차 조사 당시(1998년) 자영업에 종사하던 표본 2,415개 중 636개(26.3%)는 제1차 조사 이후와 제2차 조사 시점(1999년) 사이의 기간 중에 자영업을 그만두었고, 다른 241개는 표본에서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조사와 제3차 조사 그리고 제3차 조사와 제4차 조사 사이에는 각각 22개와 23개가 자영업을 그만두었으며 167개와 141개가 표본에서 탈락하였다. 그 결과 제1차 조사 당시의 자영업 표본 중 약 49%인 1,185개가 제4차 조사까지 여전히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사이에 자영업을 그만둔 비중을 표에서 보면 여성이 약 30%로 남성(24%)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자영업에 미친 영향에서도 자영업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제4차년도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는 비중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무엇보다 먼저 농림어업의 경우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사이에서만 자영업을 그만둔 경우(약 20%)가 발견되고 있으며 제4차 조사까지 약 3/4이 지속되는 특이함을 보여주고 있다(추후의 실증분석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은 제

의하고 분석하기로 함).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 사이에 자영업을 그만둔 비중을 업종 별로 보면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4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도 3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과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는 16%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제4차 조사까지의 잔존율은 부동산 및 임대업과 음식점 및 숙박업이 30~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과 음식점 및 숙박업에서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조사 시점과 자영업 상태의 변동



<표 7> 조사 시점과 자영업 표본의 상태변화

(단위: 명, %)

	제1차 조사	제1~2차 조사		제2~3차 조사		제3~4차 조사		제4차 조사
		표본탈락	자영업 중단	표본탈락	자영업 중단	표본탈락	자영업 중단	
전체	2,415	241(10.0)	636(26.3)	167(6.9)	22(0.9)	141(5.8)	23(1.0)	1,185(49.1)
성별								
남성	1,411	145(10.3)	338(24.0)	112(7.9)	11(0.8)	93(6.6)	14(1.0)	698(49.5)
여성	1,004	96(9.6)	298(29.7)	55(5.5)	11(1.1)	48(4.8)	9(0.9)	487(48.5)
업종별								
농림어업	481	-	98(20.4)	16(3.3)	-	14(2.9)	-	353(73.4)
제조업	310	46(14.8)	51(16.5)	30(9.7)	5(1.6)	16(5.2)	2(0.6)	160(51.6)
건설업	118	22(18.6)	30(25.4)	5(4.2)	1(0.8)	10(8.5)	1(0.8)	49(41.5)
도소매업	726	77(10.6)	196(27.0)	56(7.7)	8(1.1)	49(6.7)	9(1.2)	331(45.6)
음식숙박업	330	42(12.7)	132(40.0)	16(4.8)	4(1.2)	20(6.1)	7(2.1)	109(33.0)
운수통신업	95	9(9.5)	15(15.8)	14(14.7)	-	5(5.3)	1(1.1)	51(53.7)
부동산업	112	18(16.1)	33(29.5)	13(11.6)	1(0.9)	13(11.6)	-	34(30.4)
기타서비스	243	27(11.1)	81(33.3)	17(7.0)	3(1.2)	14(5.8)	3(1.2)	98(40.3)

주: ( )의 숫자는 구성비.

### Ⅲ. 실증분석

#### 1. 실증분석 모형

일반적으로 미완료상태(Type-I censoring)를 고려한 경과기간 모형(duration model)은

$$T = \text{Min}(T^*, c)$$

로 정의된다. 여기서  $T$ 는 관찰된 경과기간(여기서는 자영업 지속기간),  $T^*$ 는 미관찰되는 완료된 경과기간(uncensored duration),  $c$ 는 미완료 상태의 경과기간이다. 이를 해석하면 자영업을 그만둔 것이 변별된 표본의 경우에 자영업 지속기간은  $T = T^*$ 로 나타나고,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censored) 조사기간 중 표본에서 탈락한 경우에 자영업 지속기간은  $T = c$ 로 나타난다. 표본(자영업을 시작한 개인)이 한 상태에서 탈출(자영업을 그만 둠)하였음을 나타내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는

$$d = 1(\text{탈출})$$

로 정의된다.<sup>4)</sup>

일정 시점  $t$  직전까지 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문 개인인 그 상태에서 탈출할 조건부 확률인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h(t) = \lim \text{Prob}[t \leq T \leq t + \Delta t | t \leq T] / \Delta t$$

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따라 위

4) 자영업을 종료한 사유에 따라, 예를 들면 비자발적 종료와 자발적 종료를 구분하는 경우 다출구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이직)라는 상이한 원인에 의한 이별(separation)이 존재하는 임금근로의 경우와는 달리 자영업의 지속 여부는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므로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자영업 종료사유의 존재 여부와 구분 가능성을 고려한 후 익명의 심사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험함수를

$$\begin{aligned}
 h(t; X, \beta) &= h_0(t) \exp(X\beta) \\
 h(t; X, \beta) &\propto \exp(X\beta)
 \end{aligned}
 \tag{1}$$

로 정의한다.

## 2.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X)로는 개인적인 특성, 부모의 자영업 여부, 거주지역, 직종 및 업종, 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수, 사업 시작시의 어려움, 직업훈련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한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5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설명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는 표 8을 참조).

첫번째 모형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시작 당시의 연령, 성별, 학력수준), 부모의 자영업 여부, 거주지역을 포함한다. 제1차년도 조사자료는 사업체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지역은 실업률이나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두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일자리와 관련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종 및 업종 가변수를 추가한다. 직종은 전문직(준전문직)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인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사업 운영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자영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사업체 주기가 다른 경우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업종 가변수를 포함하였다.<sup>5)</sup>

세번째 모형은 사업체 운영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더하여 연간 매출액<sup>6)</sup> 및 월 평균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업 시작시기 어려움을

5)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업종 소분류(3-digit)까지 분류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를 사용하였고 회귀분석에서는 농림어업은 제외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을 기준 업종으로 하였다.

6) 연간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액수와 대략적인 범주로 응답하는 두 가지 형태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연속형 항목에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8〉 결정요인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변수명	정 의	평 균
DurM	자영업 지속기간, 단위는 개월, 연속변수	114.0(102.1)
LSales	연간 매출액, 단위는 10,000원, 연속변수, (로그값)	16,351(71,203)
Learn	월 평균소득 액수, 단위는 10,000원, 연속변수, (로그값)	93.8(130.3)
StAge	자영업 (현 사업체)을 시작할 당시의 연령/10, 연속변수	3.546(0.891)
Female	여성 가변수, 준거집단은 남성	0.406(0.491)
교육수준	4개의 범주형 변수, 고졸 집단이 준거 집단	
Hdo	고졸 미만	0.365(0.482)
Cdo	고졸 초과,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0.081(0.273)
Cgr	대졸 이상	0.134(0.341)
Married	기혼(준거 집단은 미혼)	0.936(0.244)
PRself	본인이 14세 무렵 부모가 자영업자	0.763(0.426)
거주지역	준거 집단은 서울	
Metro	광역시	0.308(0.462)
Kg	경기도	0.157(0.364)
Kunbu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0.246(0.431)
OccPro	직종이 전문직(준전문직 포함)	0.146(0.354)
업종	준거 집단은 숙박 및 음식점업	
IndMan	제조업 가변수	0.160(0.367)
IndCon	건설업 가변수	0.061(0.240)
IndSal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0.377(0.485)
IndTra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048(0.213)
IndEst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포함)	0.056(0.230)
IndEtc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27(0.333)
어려움	사업 시작 당시 어려움에 대한 설문에서 준거 집단은 어려움이 없었거나 다음 세 가지를 제외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자력, 학력, 기능의 부족,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등).	
Hard1	'어려움이 창업 또는 사업 정보를 몰라서'인 경우	0.045(0.208)
Hard2	'어려움이 자금의 부족'인 경우	0.515(0.500)
Hard3	'어려움이 경험이 부족'인 경우	0.126(0.332)
직업훈련	훈련 여부와 교육 장소. 준거 집단은 훈련받지 않은 경우	
Trained1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 경우	0.098(0.298)
Tplace1	교육 장소가 사설학원인 경우	0.029(0.169)
Tplace3	교육 장소가 공공직업훈련인 경우	0.019(0.138)
Tplace4	교육 장소가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	0.019(0.138)
Tplace9	교육 장소가 앞에서 제시한 장소를 제외한 기타인 경우	0.030(0.170)

주: ( )의 숫자는 표준편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범주형의 경우에는 중간값을 이용하였고 최대 매출액은 500억으로 상한가를 한정하였다.



가변수로 포함하였다. 현재 상태(제1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의 1차 조사 시점에서의 정보)의 자영업의 연간 매출액 및 월 평균소득은 현재 자영업의 운영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업체의 유지 또는 성장을 반영하여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시작시 겪은 어려움이 자영업(현재 사업체) 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어려움을 3개의 가변수로 포함하였다. ① 창업 또는 사업정보의 부족, ② 자금의 부족, ③ 경험의 부족을 결정변수로 포함하였고 이외의 다른 어려움을 기준 집단으로 하였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모형은 직업훈련의 여부와 직업훈련의 주체가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각각의 추가적 효과의 유의성을 가설검정한다.

### 3. 실증분석 결과

<표 9>는 자영업 지속기간의 비례위험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7)</sup> 모형 (1)은 인구학적 특성만 고려한 가장 단순한 모형이다. 시작할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정 연령(47.2세)까지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짧은(일정 시점에서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길어진다. 이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하나의 대안임을 고려할 때, 4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축적된 자산이 많아짐으로써 자영업을 시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성지미·안주엽(2002)의 결과와 더불어 40대부터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일수록 임금근로가 하나의 대안이 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자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40대까지는 자영업을 최종 일자리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한 젊은 때 자영업을 그만두고 임금근로의 대안을 찾으려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sup>8)</sup>

여성 가변수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기초분석에

7) 기초분석에서 보았듯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료된 경과기간을 갖는 표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실증분석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은 제외하였다. 농림어업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 지속기간의 비례위험모형 추정결과는 <부표 1>에 보여주고 있다.

8)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은 자영업 진입시 연령은 30대와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보다 저연령이거나 고연령일 경우는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표 IV-5 참조), 자영업을 종료한 후 임금근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30대에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결과(표 IV-26 참조)를 보고하고 있다.

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여성일수록 동일한 특성을 갖는 남성에 비해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높고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sup>9)</sup> 교육수준이 자영업 지속기간

〈표 9〉 자영업 지속기간 비례위험모형의 추정치(비농 전산업, 표본 1,905명)

	모형(1)	모형(2)	모형(3)
StAge	1.558(0.305)***	1.285(0.312)***	1.312(0.316)***
Stage2	-0.165(0.039)***	-0.139(0.040)***	-0.141(0.040)***
Female	0.476(0.088)***	0.296(0.093)**	0.148(0.097)
Hdo	-0.503(0.102)***	-0.534(0.103)***	-0.601(0.104)***
Cdo	0.255(0.152)*	0.344(0.155)*	0.366(0.157)*
Cgr	-0.088(0.134)	-0.030(0.145)	0.068(0.147)
Married	-0.891(0.181)***	-0.693(0.183)***	-0.733(0.185)***
PRself	-0.277(0.097)**	-0.299(0.098)**	-0.281(0.098)**
Metro	0.170(0.105)	0.127(0.106)	0.149(0.106)
Kg	0.176(0.131)	0.111(0.132)	0.137(0.132)
Kunbu	-0.259(0.124)*	-0.351(0.125)**	-0.313(0.125)*
OccPro		-0.157(0.155)	-0.152(0.156)
IndMan		-1.386(0.164)***	-1.361(0.166)***
IndCon		-0.942(0.209)***	-0.922(0.209)***
IndSal		-0.826(0.114)***	-0.787(0.115)***
IndTra		-1.340(0.279)***	-1.272(0.281)***
IndEst		-0.619(0.226)**	-0.656(0.227)**
IndEtc		-0.580(0.154)***	-0.540(0.156)***
LSales			-0.111(0.031)***
Learn			-0.080(0.019)***
Hard1			0.317(0.205)
Hard2			0.173(0.100)*
Hard3			0.243(0.138)*
-2 LogL	7,774.9	7,682.7	7,644.2
LR 검정통계량		92.25***	38.51***

주:( )안은 표본오차.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변수의 정의는 <표 8> 참조.

LR 검정통계량은 모형(2)의 모형 (1), 모형 (3)의 모형 (2)에 대하여 추가된 변수들이 전부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통계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9) 모형 (1)과는 달리 산업 가변수, 경제적 성과와 자영업 시작 당시의 환경 등을 고려한 모형 (3)에서는 여성 가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영업 지속기간의 성별 격차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추후의 연구로 미룬다.

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고졸자에 비해 고졸 미만 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졸 초과 대졸 미만 자는 자영업 지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도 0.10 수준)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졸 이상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14세 당시 부모가 자영업을 하였을 경우에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난다. 지역 가변수의 경우 서울과 비교할 때 도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나며 나머지 6대 대도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한 모형 (1)의 추정치는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한 모형 (2)와 (3), 가설 (1)과 (2)에서도 방향과 크기 및 유의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상당히 robust함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단순한 모형 (1)에 자영업의 특성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변수로 구성된 벡터를  $X_1$ , 추가된 변수로 구성된 벡터를  $X_2$ 로 표현하면 식 (1)은

$$h(t; X, \beta) \propto \exp(X_1\beta_1 + X_2\beta_2) \tag{2}$$

가 된다. 추가된 변수들에 대한 유의성에 대한 가설검정 절차(우도비검정법)는 다음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H_0: \beta_2 = 0 \text{ vs. } H_a: \text{Not } H_0$$

을 설정한다. 대립가설은 제약되지 않은 모형(unrestricted model) 식 (2)가 적절한 모형임을 의미하며 귀무가설은 제약된 모형(restricted model)

$$h(t; X, \beta) \propto \exp(X_1\beta_1) \tag{3}$$

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가설에 따라 모형을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하여 최우도를 구한다. 제약되지 않은 모형의 최우도를  $L_u(\beta_1, \beta_2)^*$ , 제약된 모형의 최우도를  $L_r(\beta_1, 0)^*$ 라 하면, 우도비(likelihood ratio)는

$$\lambda = L_r(\beta_1, 0)^* / L_u(\beta_1, \beta_2)^*$$

로 정의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도비검정통계량(LR test statistics)을

$$LR = -2 \log \lambda = -2 (\log L_r(\beta_1, 0)^* - \log L_u(\beta_1, \beta_2)^*) \sim \chi^2(r)$$

을 정의하고 일정 수준의 유의수준에서 통계량의 값이 critical value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표에 제시된 가설검정 결과는 자영업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모형 (2)가 단순한 모형 (1)보다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는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에 비해 다른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이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식 및 숙박업이 다른 모든 업종에 비해 자영업 지속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모형 (3)은 모형 (2)에 사업체 운영 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변수는 자영업의 경제적 상태 또는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자영업의 연간 매출액과 월 평균소득,<sup>11)</sup> 자영업 시작 당시의 어려움—창업(또는 사업)정보 부족, 자금 부족, 경험 부족—을 나타내는 가변수들이다. 가설검정의 결과는 추가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하므로 모형 (3)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모형 (3)의 추정 결과를 보면, 매출액 수준과 자영업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가 좋을수록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가 자영

10)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 표 V-5)은 383명의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하는 모형에서 생애주기 관련변수(기혼, 출산, 배우자 유무)와 연령대, 교육수준, 직종 가변수, 산업 가변수만을 고려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일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출산을 경험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1)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연간 매출액이나 연간 소득)는 가변변수(time-varying variable)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과기간은 월 단위로 측정되고 경제적 성과는 1년에 한 차례 연 단위로 조사되고 있어 단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과기간은 제1차 조사 이전에 시작하고 제1차년도 조사 당시 현재 일자리로 보고된 경우에 한정되나 제1차년도 조사 이전 연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모든 경과기간 중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1차년도 조사 당시 조사된 경제적 성과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1차년도 조사 당시까지 경과된 기간은 주어진 것으로 하고, 그 이후 경과기간을 연 단위로 분리한 후 두 시점 사이에, 예를 들면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조사 사이에 자영업을 지속하는가 또는 종료하였는가라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를 설정하여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모형을 설정하여 한 시점까지의 지속기간을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가변변수의 경제적 성과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sup>12)</sup>

창업 당시 어려움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금 부족의 경험이나 경험 부족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수준 10%)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을 포함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창업정보 부족의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수준 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훈련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

<표 10>은 직업훈련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는 직업훈련 이수 여부가 미치는 효과와 직업훈련의 주관자별 효과의 차이 두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sup>13)</sup> 추가변수의 적정성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는 직업훈련 이수 여부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직업훈련 주관자/장소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낮은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훈련의 이수 여부는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에 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고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훈련의 주관자/장소의 효과를 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유의수준 5%에서 자영업의 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기타 장소는 10%의 낮은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반면 사설학원이나 사업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주관자/장소에 따라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가 지속성이 높아지는가 또는 지속성이 높으면 경제적 성과가 좋아지는가에 대한 논의는 두 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다루는 성지미·안주엽(2002)은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결과와 종합하면, 자영업의 현재까지의 경제적 성과는 미래의 지속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지속성 자체가 경제적 성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대안이 없이 차선책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실증분석에 포함된 자영업 표본 중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 표본은 약 9.8%에 해당하며 2.9%는 사설학원에서, 1.9%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1.9%는 사업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에서, 3.0%는 그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훈련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비농 전산업, 표본 1,905명)

	가설 (1)	가설 (2)
StAge	1.335(0.316) ***	1.357(0.315) ***
Stage2	-0.144(0.040) ***	-0.145(0.040) ***
Female	0.157(0.098)	0.154(0.098)
Hdo	-0.627(0.105) ***	-0.636(0.105) ***
Cdo	0.339(0.157) *	0.358(0.158) *
Cgr	0.047(0.147)	0.058(0.147)
Married	-0.736(0.185) ***	-0.736(0.185) ***
PRself	-0.290(0.098) **	-0.289(0.099) **
Metro	0.171(0.107)	0.175(0.107)
Kg	0.151(0.132)	0.147(0.132)
Kunbu	-0.302(0.125) *	-0.301(0.125) *
OccPro	-0.149(0.155)	-0.148(0.156)
IndMan	-1.362(0.166) ***	-1.370(0.166) ***
IndCon	-0.882(0.210) ***	-0.863(0.210) ***
IndSal	-0.797(0.115) ***	-0.807(0.115) ***
IndTra	-1.241(0.282) ***	-1.261(0.282) ***
IndEst	-0.634(0.227) **	-0.654(0.227) **
IndEtc	-0.506(0.156) **	-0.513(0.157) **
LSales	-0.113(0.031) ***	-0.113(0.032) ***
Learn	-0.078(0.019) ***	-0.079(0.019) ***
Hard1	0.331(0.205)	0.308(0.205)
Hard2	0.179(0.100) *	0.165(0.101)
Hard3	0.230(0.138) *	0.211(0.138)
Trained1	-0.388(0.162) *	
Tplace1		-0.098(0.270)
Tplace3		-1.024(0.417) *
Tplace4		-0.033(0.309)
Tplace9		-0.544(0.308) *
-2 LogL	7,637.8	7,632.3
LR 검정통계량	6.32*	11.85*

주와 자료: <표 9>의 주와 자료 참조. LR 검정통계량은 가설 (1) '훈련의 영향이 없다'와 가설 (2) '훈련주체별 훈련의 영향이 없다'는 모형 (3)의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 통계량.

## IV. 맺는 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일천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중립적일 것이다. 몇몇 연구의 대부분은 자영업 선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비임금근로로서의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또는 유사한 특성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는가를 연구하는 데 치중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 분석에서 무엇보다 먼저 '왜 자영업을 선택 또는 창업하는가?'라는 의문이 앞설 것이다.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영업 자체를 선호하는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근로(lifetime work)의 한 과정으로 자영업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자영업 창업동기와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창업 과정에서 이전 직장들에서의 각종 경험 및 민간 및 공공이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상담이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 등 창업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

자영업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영업의 성과를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자영업의 성장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창업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 정책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영업의 성과지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가' 등 자영업의 성장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 역시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왜 자영업을 그만두는가'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더 나은 대안—예를 들면, 은퇴나 임금근로—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등이 주요한 관심사일 것이며, 이러한 관심은 '자영업의 소멸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멸 과정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로 이어진다. 일정 시점까지 지속된 자영업이 일정 시점에서 자영업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지속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연속이 지속기간으로 나타나며 이는 경과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3년, 농림어업을 제외한 경우에도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취업의 대안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성별 지속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초분석과는 달리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경우에는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다소 짧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림어업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며 제조업이 그 다음으로 긴 편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제위기 직후 한 해 동안(제1차년도인 1998년과 제2차년도인 1999년 사이)에 자영업 표본의 약 29%가 자영업을 그만두었다는 점(그 이후는 매년 1~2%만 그만두고 있음)은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넷째, 자영업에 진입할 당시의 연령이 자영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창업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반면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을 그만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을 지속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자영업이 취업의 좋은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연간 매출액이나 자영업 소득으로 표현한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을수록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이 낮아지는 한편 정보의 부족이나 자금 부족 및 경험 부족은 자영업을 그만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 및 자금 등에서 자영업 창업지원은 직접적으로 자영업의 지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의 제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영업의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고령화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는 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자영업 지속기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매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패널화한 자료에서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연 단위로 조사하거나 회고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속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동일한 자영업을 놓고 나타나는 이러한 상충되는 현상이 조사 단위나 방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사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훈련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책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의 내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훈련 여부 및 방법이 자영업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창업지원 등이 특히 임금근로로의 취업 가능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력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우리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화사회에서 자영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교육, 훈련, 자금지원, 마케팅, 컨설팅, 인적자원관리 등 다양한 자영업 창업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고 이러한 창업지원이 자영업의 성과와 지속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임금근로로 진입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택한다는 자영업이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며 일자리의 안정성도 확보된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셋째, 본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지속기간의 성별 격차 및 자영업의 유형별 격차,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지속성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자영업의 종료 사유를 다양하게 구분한 다출구위험모형의 접근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점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구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출률을 자영업 기대기간으로 환산함으로써 각 변수가 기대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계층에 대한 자영업 기대기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경기변동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초분석의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의 가능성이 급속히 하락하였던 경제위기 중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적으로는 경기하강시에는 임금근로의 가능성도 낮아지지만 자영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자영업의 비중은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유지형 자영업이 많고 무급가족종사자가 존재한다면 경기 하강시에는 오히려 자영업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변동이 자영업의 창업, 이의 경제적 성과 및 지속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부수적인 목적 중 하나는 자영업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이나 연구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노동패널」이 자영업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이미 언급한 자영업의 생성, 성장 및 소멸 과정을 연구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료 구축의 시작과 더불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설문항을 개발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와 연구, 그리고 정책시사점이 풍부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81-107.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55-80.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1999): 109-140.
- 문유경·성지미·안주엽. 『여성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2권 3호 (2002).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109-132.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_\_\_\_\_.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02.
- Delage, B. *Results from the Survey of Self-Employment in Canada*, Applied Research Bran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2002.
- Nziramasanga, Mudziviri and Lee, Minsoo. "Duration of Self-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Small Enterprises in Zimbabwe". *Small*

*Business Economics*, 17 (4) (2001, Dec): 239-253.

Taylor, Mark, P. "Survival of the Fittest? An Analysis of Self-Employment Duration in Britain". *Economic Journal* 109 (454) (1999): C140-155.

〈부표 1〉 자영업 지속기간의 비례위험모형 추정(전산업 표본)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가설 (1)	가설 (2)
StAge	2.619(0.259)***	1.900(0.266)***	1.927(0.267)***	1.942(0.267)***	1.959(0.266)***
Stage2	-0.306(0.033)***	-0.224(0.033)***	-0.226(0.033)***	-0.228(0.033)***	-0.229(0.033)***
Female	0.515(0.081)***	0.334(0.085)***	0.172(0.090)*	0.177(0.091)*	0.172(0.091)*
Hdo	-0.665(0.097)***	-0.591(0.098)***	-0.648(0.099)***	-0.670(0.099)***	-0.675(0.099)***
Cdo	0.268(0.150)*	0.333(0.153)*	0.361(0.154)*	0.339(0.155)*	0.358(0.155)*
Cgr	-0.057(0.133)	-0.020(0.144)	0.067(0.146)	0.048(0.146)	0.059(0.146)
Married	-1.070(0.173)***	-0.807(0.175)***	-0.860(0.177)***	-0.860(0.177)***	-0.858(0.177)***
PRself	-0.296(0.096)**	-0.281(0.096)**	-0.267(0.096)**	-0.274(0.096)**	-0.270(0.096)**
Metro	0.115(0.104)	0.119(0.105)	0.146(0.105)	0.163(0.105)	0.165(0.105)
Kg	0.018(0.128)	0.025(0.129)	0.057(0.129)	0.069(0.129)	0.067(0.129)
Kunbu	-0.387(0.114)***	-0.280(0.117)*	-0.249(0.117)*	-0.238(0.117)*	-0.238(0.117)*
OccPro		-0.149(0.155)	-0.147(0.156)	-0.144(0.155)	-0.142(0.155)
IndAgr		-1.670(0.173)***	-1.751(0.178)***	-1.746(0.178)***	-1.744(0.178)***
IndMan		-1.403(0.164)***	-1.399(0.165)***	-1.400(0.165)***	-1.407(0.165)***
IndCon		-0.932(0.208)***	-0.913(0.208)***	-0.885(0.208)***	-0.875(0.209)***
IndSal		-0.854(0.114)***	-0.819(0.114)***	-0.830(0.114)***	-0.838(0.114)***
IndTra		-1.310(0.278)***	-1.249(0.280)***	-1.224(0.280)***	-1.241(0.280)***
IndEst		-0.615(0.225)**	-0.669(0.227)**	-0.650(0.227)**	-0.668(0.227)**
IndEtc		-0.600(0.153)***	-0.550(0.154)***	-0.523(0.155)***	-0.535(0.156)***
LSales			-0.096(0.029)***	-0.097(0.029)***	-0.096(0.029)***
Learn			-0.089(0.019)***	-0.087(0.019)***	-0.087(0.019)***
Hard1			0.392(0.189)*	0.410(0.189)*	0.394(0.189)*
Hard2			0.135(0.093)	0.142(0.093)	0.135(0.094)
Hard3			0.182(0.129)	0.172(0.129)	0.161(0.129)
Trained1				-0.333(0.150)*	
Tplace1					-0.054(0.261)
Tplace3					-0.702(0.340)*
Tplace4					-0.034(0.309)
Tplace9					-0.510(0.273)*
-2 LogL	9,062.4	8,931.1	8,888.7	8,883.4	8,879.6
LR 검정통계량		131.28***	42.40***	5.33*	9.12*

주: ( )안은 표본오차.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변수의 정의는 <표 8> 참조.

LR 검정통계량은 <표 9> <표 10>을 참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제4차년도(2001).

## abstract

---

## An Empirical Study on the Duration of Self-employment

Joyup Ahn · Jaimie Sung

The recent experience about self-employment shows three main trends: first, its share out of the total workers has steadily increased, recording 37.6% in 2001, implying its prevalence and importance; second, its share out of male workers has caught up female workers', implying its importance to males as well as females; and finally, during the recent Economic Crisis when there was mass layoff and large scale bankruptcy, its share rapidly increased, reflecting its role of a buffer to economic fluctu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self-employment, mainly focusing on what makes someone choose it as an alternative to being employed.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duration to terminate self-employment, by applying the proportional hazard model to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KLIPS started the first wave in 1998 with the 5,000 household sample (and about 12,000 individual sample of household members aged 15 and more). In this study, the first four waves are used for analysis. The average duration of 5,357 spells of self-employment is 130 months. It shows slight difference between males(124 months) and females(138 months) while it widely ranges over industries (296 months for agriculture industry while 50 months for restaurant and hotel industry).

Estimates of the proportional hazard model of the self-employment duration show that females are more likely to terminate self-employment while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age at starting self-employment on the hazard

shows the inverse U-shape, which implies that, until a certain age(47 years), the hazard become higher as aging while, since then, it become lower as aging. The level of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hazard, implying that more education is related to the higher probability to be employed. The measures of economic performances, annual sales and earnings, are positively related to continuing self-employment while hardship at the start of self-employment measured by several ways has a negative effect. Training before opening busi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keeping on self-employment and its effects are different over its providers, significantly positive for public providers while insignificant for private providers.

More and further research on self-employment is urgent in the rapidly ageing society. To help workers to be self-employed, more public assistance is necessary for education, training, financing, marketing,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order to make the olders consider self-employment as a good alternative rather than an inevitable one.

Key words : self-employment, job training, the proportional hazard model